

아얀 히르시 알리(Ayaan Hirsi Ali)의 이슬람 개혁론

Understanding Ayaan Hirsi Alis Reformation

저자 (Authors)	임스데반 Steve Yim
출처 (Source)	Muslim-Christian Encounter 11(2) , 2018.9, 187-220(34 pages)
발행처 (Publisher)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 TORCH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41382
APA Style	임스데반 (2018). 아얀 히르시 알리(Ayaan Hirsi Ali)의 이슬람 개혁론. Muslim-Christian Encounter, 11(2), 187-220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220.67.255.***
2021/02/08 (Accessed)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아얀 히르시 알리 (Ayaan Hirsi Ali)의 이슬람 개혁론

임스데반*

- I. 서론
- II. 아얀 히르시 알리의 이슬람 (종교)개혁의 배경
- III. 아얀 히르시 알리의 이슬람 개혁론의 내용
- IV. 이슬람 개혁(ISLAMIC REFORMATION)에 대한 논의들
- V. 결론: 아얀 히르시 알리의 이슬람 개혁론과 한국교회

I. 서론

이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9.11 사태 이후 한국교회에 무겁게 던져진 질문이다. 무슬림은 어떤 사람들이며 이들이 믿는 이슬람은 어떤 종교인가? 과연 이들은 세계평화에 암적인 존재인가? 이주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한국에도 무슬림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이들의 증가를 용납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들의 증가가 한국사회의 불안요인임을 강조하며 적극 저지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많은 이들이 이슬람 관련 책을 읽고 세미나를 참석한다. 그러나 이슬람과의 접촉이 거의 없었던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이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매스컴의 자극적인 뉴스에 기초하고 있는 우리의 이슬람 이해는 막연하고 추상적일 수 밖에 없다. 세계 인구의 네 명 중 한 명이 무슬림이지만 이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TV 화면에 비친 과격하고 폭력적인 무슬림들 잔상의 연장선상을 맴돌 뿐이다. 과연 이런 피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진 이슬람 관련한 질문들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급진주의 과격 무슬림들이 외치는 주장을 이슬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이들은 단지 이슬람의 옷을 입은 정치 집단에 불과한가? 침묵하는 다수의 보통 무슬림이 그리는 이슬람 세계는 어떤 모습인가? 이들은 우리와 공존이 가능한 존재들일까? 그들이 믿는 이슬람은 여타 종교들과 조화될 수 있는가?

피상적인 이슬람 이해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슬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슬람 내부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

www.kci.go.kr

이다. (매스컴에 등장하는) 소수의 급진적 무슬림들이 아니라 무슬림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침묵하는) 일반 무슬림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않는, 보통 무슬림들의 생각을 읽기는 쉽지 않지만, “Who Speaks for Muslims?”와 같은 대규모 리서치 프로젝트의 결과를 통해 이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가톨릭계의 이슬람 학자인 에스포지토 (John L. Esposito)와 이란계 무슬림 학자인 모가헤드 (Dalia Mogahed)는 갤럽과 함께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계 무슬림 대중들의 의식을 조사해 발표하였다.¹ 이 광범위한 연구는 침묵하는 다수의 무슬림들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런데 이 설문 결과들과 현실에서 우리가 접하는 이슬람의 현실들은 여전히 거리감이 있다. 이슬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정보들은 여전히 모호하고 혼란스럽다.

이슬람의 현실과 미래 전망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이슬람 내부인으로서 이슬람의 한계를 깨닫고 이슬람의 중심에서 한 걸음 떨어져 나와 이슬람을 객관적 (또는 비판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이슬람 세계의 종교 사회적 결속력을 고려할 때 이런 관점을 피력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21세기 들어 이슬람 개혁에 대한 무슬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비판적 관점에서 이슬람을 이해하고 이슬람의 근본교리에 대한 재고를 통해 여타 문명과 공존 가능한 이슬람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슬람에 대한 개혁적 관점이 힘을 얻게 된 것은 이슬람 세계 내의 변화들에 기인한다. 근대화된 교육의 확대, 위성

1 John L. Esposito & Dalia Mogahed, *Who Speaks for Islam: What A Billion Muslims Really Think* (New York: Gallop Press, 2007).

TV나 인터넷 같은 매스미디어의 보편화 등으로 무슬림들의 이슬람에 대한 지식이 깊어졌다.² 그 결과 근본주의 이슬람을 설파하는 무슬림 지도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예전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무슬림들의 비무슬림 지역으로의 이주 확대도 또 다른 이유이다. 이민, 또는 난민의 형태로 많은 무슬림들이 서구 세계로 이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슬람 문화와 서구 문화의 중간에 서서 새로운 이슬람의 관점을 세워가고 있다. 서구 등 비무슬림 지역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은 이주 무슬림들과 그 후손들은 이슬람의 내부자이면서 동시에 이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이들 중에 이슬람의 개혁을 외치는 엘리트들이 늘고 있다.

아얀 히르시 알리(Ayaan Hirsi Ali)는 이슬람과 서구 문화의 중간에 서서 개혁적 입장을 대변해 온 대표적 인물 중 하나이다. 이슬람 내부자로서 이슬람의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이슬람의 개혁을 역설한 그녀의 관점은 이슬람 이해를 위한 유익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히르시 알리는 이슬람 문화의 중심에서 성장했지만 성장한 후에는 서구로 망명해 서구의 대학 교육을 받고 세속주의적 문화를 경험하였다. 그녀는 매우 드라마틱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슬람 개혁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자신이 쓴 책들을 통해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다.³ 히르시 알리는 십대와 이십대 청년기를 이슬람 근본주의에 심취해 보냈고, 원하지 않는 결혼을 피해 난민으로서 네덜란드로 망명하게 되면서 이슬람 문화를

2 Dale F. Eickelman, "Who Speaks for Islam? Inside the Islamic Reformation," Michaelle Browers and Charles Kurzman, eds, *An Islamic Reformation?* (Oxford: Lexington Books, 2004), 18-27.

3 아얀 히르시 알리의 이슬람 개혁적 사고를 갖게 된 여정을 담은 책들은 다음과 같다. 『이 단자 아얀 히르시 알리』 (2010) 『나는 왜 이슬람 개혁을 말하는가』 (2016) 『*Namad: A Personal Journey Through the Clash of Civilization*』 (2010)

벗어나 이슬람 문화와 대비되는 서구의 세속주의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히르시 알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무슬림 여성의 인권을 위해 싸웠고, 최근에는 문제의 뿌리가 되는 이슬람의 개혁을 주장하는 데까지 발전하였다.

본 소고를 통해 히르시 알리의 최근 책인 『나는 왜 이슬람 개혁을 말하는가?』를 중심으로 그녀의 이슬람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슬람 내부자로서 이슬람의 개혁에 대한 그녀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슬람을 적대세력으로 보고 배척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평화로운 공존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이슬람 내부자이면서 동시에 외부자의 관점으로 이슬람을 설명하는 히르시 알리의 주장이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슬람 종교개혁에 관한 히르시 알리의 주장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적 상황에서 이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아얀 히르시 알리의 이슬람 (종교)개혁의 배경

히르시 알리는 그녀의 책을 통해 이슬람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의 변화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단자 *Infidel*』(2010)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 어떻게 자신이 이슬람 근본주의적 관점을 갖게 되고 이슬람을 향한 열정으로 청년기를 보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⁴

4 16세때 만남 아지자 선생님과 보콜 샴이란 무슬림 지도자를 통해 메디나 이슬람을 배웠고 그들의 안내를 따라 무슬림 형제단에 가입한다. 이때부터 청년기를 열성적 무슬림으로 이슬람 근본주의적 운동에 참여했다.

이어서 왜 자신이 이슬람을 떠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한다. 이슬람으로부터 그녀가 멀어지게 된 최초의 계기는 결혼 문제였다.⁵ 원하지 않는 결혼을 피해 난민이 되었고 난민으로서 서구사회(네덜란드)를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이 성장한 이슬람 문화를 객관적 비판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후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에서의 공부(정치학), 무슬림 이주민 여성 인권을 위한 사회활동, 정계에 입문하여 네덜란드의 자유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으로서의 활동 등을 통해 이슬람 문화의 어두운 면들과 씨름하게 되었다.

히르시 알리를 이슬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끈 사건은, 2001년 발생한 9.11 사태와 무슬림 여성의 인권 문제를 다룬 영화를 함께 제작했던 반 고흐 감독의 피살이었다. 히르시 알리는 이 사건 이후 이슬람을 떠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된다. 이슬람 과격파들의 지속되는 살해 위협 속에서 결국에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 신변의 위협 속에서도 그녀는 이슬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종 강연과 저술을 통해 이슬람(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서구 사회에 호소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아얀 히르시 알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이유는 그녀가 이슬람 근본주의적 사상에 깊이 젖어 있었던 내부인이라는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과격 무슬림들의 살해 위협 속에서(자기 목숨을 걸고) 자신의 소신을 말해온 그녀의 진정성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주장은 상아탑에서 논의되는 추상적인 학문적 담론이 아니다. 목숨을 걸고 이슬람의 개혁을 외치는 현장의 소리이다.

5 히르시 알리는 이슬람 전통에 따라 부모님이 정해진 약혼자와 강제로 결혼하게 되었으나 이를 거부하고 네덜란드로 망명하게 된다. 망명과 정착과정을 통해 서구 문화를 접하게 되고 이는 이슬람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무슬림들에 의해 자행된 테러들이 있을 때마다, 서구의 정치 지도자들과나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급진적 무장투쟁세력이 이슬람과 무관하며, 과격파들이 이슬람을 단지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히르시 알리는 테러리즘이나 극단주의를 이슬람과 분리시켜 설명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폭력행위들은 이슬람의 지지 속에서 진행되며 무슬림에 의한 테러는 그 뿌리가 이슬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슬람의 영향력을 배제한채 이슬람 세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격한 폭력의 문제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노력(이슬람과 과격주의 구분을 통한 문제 해결)이 전혀 의미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무슬림들에 대한 보복이 그들의 폭력보다 더욱 염려스러울 수 있다는 건 결국 서구 진보주의자들의 잘못된 확신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시각에서 9.11 테러 공격을 감행한 자들은 무슬림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들을 대표한다고 생각되었다. 그 결과 그들의 잔혹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념이 아닌 그들의 전략에 초점을 맞춰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서구는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말하는 ‘온건한’ 무슬림들 (주장을) 수용하고, 진정한 개혁을 추구하려고 애쓰는 반체제 무슬림들을 소외시키고 말았다.⁶

이슬람 세계 전체를 적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 이슬람을 과격 무슬림들의 테러리즘과 연결시키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문제의 뿌리를 외면하는 것이며, 동시에 폭력과 테러 해결을 위해 이슬람의 근본적 개혁을 주장하는 반체제 무슬림 개혁론자들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경고한다.

6 히르시 알리, 「나는 왜 이슬람 개혁을 말하는가」, 32.

히르시 알리는 이슬람 근본주의와 그들의 폭력적 주장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이슬람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슬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들 대부분은 사회, 경제적 여건이 아닌 이슬람 경전의 기본적인 가르침에 기인한 것이며 따라서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

지난 13년 동안 나는 이슬람 테러 활동과 관련해 꾸준히 하나의 주장을 펼쳐왔다.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의 폭력행위를 그들의 종교적 이상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지에 대한 것이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동력이 이슬람 경전 꾸란 Quran에 표현된 정치적 이념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하디스 Hadith의 가르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내가 주장하는 바를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가 아니다.⁷

히르시 알리는 이슬람 지도자들로부터 이슬람에 대해 편파적인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녀는, 이슬람의 교리 등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한 채, 무슬림 과격주의자들의 정치적 구호나 전략의 문제만 다루어서는 그들의 폭력적 활동과 주장들을 절대 이해될 수 없으며 무슬림들의 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슬람의 개혁이 전제되지 않는 이슬람 테러리즘의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폭력을 용인하고 촉발시키는 이슬람의 핵심 개념들의 개혁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녀는 이슬람 개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힌다.

7 히르시 알리, 「나는 왜 이슬람 개혁을 말하는가」, 22.

어쩌면 나는 수많은 무슬림들을 비롯해 서구의 이슬람 옹호자들을 불편하게 할 작정으로 이 책을 쓰기로 마음 먹은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수세기에 걸쳐 다져진 종교적 정설에 도전하려 한다. 내가 주장하려는 것은 바로 이슬람 개혁이다. 이슬람의 핵심개념들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고서는 종교의 이름으로 전세계에서 자행되고 있는 정치적 폭력을 해결할 수 없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교리를 수정하는데 뜻을 같이할 거라는 희망을 품고 나는 이제 자유롭게 말할 것이다.⁸

Ⅲ. 아얀 히르시 알리의 이슬람 개혁론의 내용

아얀 히르시 알리는 극단주의자들의 폭력 행위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슬람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왜냐하면 극단주의자들의 주장은 이슬람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폭력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이슬람의 핵심교리가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의 핵심 교리들에 대한 개혁 없이는 이슬람 근본주의의 폭력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히르시 알리 2016: 33)

그러나 히르시 알리의 이슬람 개혁론은, 세계 종교로서의 이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할 때 사용하는 이슬람 교리들에 대한 개혁으로 이해하는 것을 옳다. 폭력을 지지하는 이슬람 극단주의는 전체 무슬림들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슬람 근본주의의 폭력적 주장들이 이슬람의 근본 교리와 가르침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메카) 무슬림들이 이들의 주장

8 Ibid., 23.

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히르시 알리의 이슬람 종교개혁은 급진주의 무슬림들로부터 다수의 비폭력적인 무슬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혁을 의미한다.

히르시 알리는 무슬림들을 크게, 대다수의 일반 무슬림을 의미하는 ‘메카 무슬림’, 이슬람 급진주의자로 대변되는 ‘메디나 무슬림’, 그리고 반체제 ‘개혁주의적 무슬림’으로 나눠 이해한다. 이슬람 세계의 현재는 다수를 구성하는 ‘메카 무슬림’ 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슬람 세계의 미래는, 급진적 폭력주의를 주장하는 ‘메디나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개혁을 외치는 반체제 개혁주의 무슬림(세번째 유형)들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이해한다.

물론 모든 무슬림은 하나의 신앙고백에 기초하며 이런 면에서 무슬림 세계는 하나이다.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무함마드는 그의 예언자임을 나는 중언한다.”라는 신앙고백 ‘샤하다’(*Shahada*)만큼 이슬람 신앙을 잘 표현하는 상징은 없다. 이 고백 위에서 이슬람은 하나의 신앙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슬람은 크게 위의 세 유형으로 나뉘며 이들은 함께 이슬람 세계를 형성한다. 히르시 알리는 이슬람 세계의 미래는 반체제 개혁주의 무슬림들에 의해 주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청하고 있다.⁹

이슬람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무슬림들의 세 유형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유형은, ‘메카 무슬림’으로 이들은 이슬람 세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류로 이슬람 핵심교리에 충실하고 독실하게 알라를 섬기지만, 이슬람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한다. 메카에서 받은 무함마드의 초기 계시 중심으로 이슬람을 이해

9 히르시 알리, 『나는 왜 이슬람 개혁을 말하는가』, 34-35.

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강조한다.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유대교나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이다. 메카 무슬림들은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비무슬림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메카 무슬림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전통적인 종교적 믿음과 현대성 사이의 갈등적 긴장관계이다. 신앙과 세속주의 경협이라는 두 세계 사이에 갇혀 매일 갈등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와 충돌하는 현대의 다원적인 문화에서 이슬람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오랫동안 긴장과 불화 속에서 살아온 무슬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두 가지 밖에 없어 보인다. 나처럼 이슬람을 완전히 떠나든가, 아니면 일상에서 준수하던 규율 대신 현대성을 거부한 채 비타협적인 이슬람 교리를 따르는 메디나 무슬림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¹⁰

둘째는 ‘메디나’ 무슬림이다. 메디나 무슬림은 전세계 16억 무슬림 인구 중 5천만 내외에 불과하지만 급진적이며 폭력지향적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슬람의 가르침이 ‘메카’ 무슬림들 안에 확대되고 있고 이는 이슬람의 미래에 대한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¹¹ 이슬람 교리에 의해 통치가 시행되던 메디나 시절 무함마드가 받은 계시에 근거하여 이슬람을 이해한다. 이슬람의 종교적 율법인 샤리아의 준수를 강조하고,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이슬람에 의한 통치를 지향하며 모든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이끄는 것을 종교적 의무로 생각한다. 여성들에게 대한 억압이 허용되고 비무슬림 세계와의 (폭력적) 투쟁

10 Ibid., 38-39.

11 Ibid., 37.

을 지하드(성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슬람 배교에 대해 사형을 주장한다.

마지막 유형은 이슬람의 개혁을 주장하는(반체제) ‘개혁주의적’ 무슬림들이다. 히르시 알리 자신처럼 이슬람을 떠나 이슬람 밖에서 이슬람의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과 이슬람 내부에서 이슬람의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한다. 이들은, 천 년 전에 결정된 이슬람 법학파들의 교리(신학)를 현대적 상황에 맞춰 수정 또는 재해석하고, 이슬람 신앙에 대한 종교적 담론을 보다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기초 위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근본주의 과격 무슬림들의 살해 위협과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이슬람 세계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주장하며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과격 이데올로기로 변질된 근본주의 이슬람의 확산은 외부의 노력만으로는 바꿀 수 없다.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일어나야만 하는데, 히르시 알리는 이들 개혁주의 무슬림들이야말로 이슬람의 내부로부터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라 주장한다. 이슬람 개혁론자들이 외치는 내부의 목소리가 이슬람 세계를 개혁으로 이끌도록 비무슬림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나는 이들 반체제 인사들과 개혁가들의 편에 서서 돕는 것이야말로 메디나 무슬림들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들이 메디나에 근거한 무함마드의 도덕적 유산을 확인하고 거부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들이 메카 무슬림들을 설득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편협함과 전쟁에 대한 호소를 거부하도록 도와야 한다.¹²

12 히르시 알리, 「나는 왜 이슬람 개혁을 말하는가」, 43.

이슬람의 종교개혁이 가능하려면, 극단주의적 이슬람의 뿌리가 되는 다음 몇 가지 이슬람 신앙의 핵심 개념이 거부되거나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히르시 알리는 주장한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¹³

1. 꾸란(특히 메디나에서 계시된 부분)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무함마드를 반(半) 신성하고 오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태도
2. 현세의 삶보다 내세의 삶을 중시하는 태도
3. 꾸란에서 유래한 법률 체계인 샤리아와 하디스, 그 밖의 이슬람 법학
4. 옳은 일을 강요하고 그른 일을 금지함으로써 이슬람 율법을 집행할 권한을 주는 관습
5. 지하드 혹은 성전을 수행하라는 명령

히르시 알리가 주장하는 이슬람 종교개혁은 폭력을 지지하는 위의 핵심 교리들에 대한 개혁을 의미한다. 이 개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슬람 신학(법학)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꾸란의 (재)해석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슬람에 대한 합리적, 비판적 사고가 허용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루터가 카톨릭 교회 개혁을 위해 95개조의 반박문을 제시했듯이 히르시 알리는 세계화된 시대와 양립할 수 없는 이슬람 근본주의 교리들의 변화를 요청한다.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처럼, 이슬람의 종교개혁이 가능하게 하는 시대 상황의 변화와 이슬람 내부의 개혁의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녀는 이슬람 내부의 종교개혁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13 Ibid., 42.

내가 예전에 발표한 책들을 읽어 본 독자라면 나의 접근 방법이 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이다 『유목민 *No-mad*』이라는 책을 쓸 때에만 해도 나는 이슬람이 개혁불가능한 종교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진 무슬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다른 신을 선택하는 길뿐이라고 믿었다. (중략) 내가 『유목민』을 출간한 뒤 7개월 후 아랍의 봄이 시작됐다. 나는 그때 4개의 정부가 몰락하고 (이집트는 연이어 두 번) 다른 14개 국가에서 반정부 시위와 봉기가 일어나는 역사적 순간들을 똑똑히 목격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틀렸다고. 평범한 무슬림들은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¹⁴

이슬람 종교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히르시 알리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꾸란이다. 꾸란은 7세 초 사우디의 부족사회와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기록되었다. 꾸란 계시의 많은 부분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메디나 시대의 계시들은 초기 무슬림 통치상황과 전쟁들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꾸란 해석의 경직성 때문에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합리적 해석학은 허용되지 않았다. 8-9세기 이슬람 법학파들에 의해 결정된 꾸란 해석 지침들이 현재까지 꾸란의 해석을 지배하고 있다. 히르시 알리는 꾸란에 대한 합리적 해석학의 발전과 그에 따른 꾸란 해석의 융통성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폭력 정당화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꾸란 해석은 폐기 또는 재해석되어야 한다.

14 히르시 알리, 「나는 왜 이슬람 개혁을 말하는가」, 112-113.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 너무도 자주 꾸란을 근거로 정당화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무슬림들은 그들의 경전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반성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고는 꾸란의 인간적 특성과 수많은 내적 모순을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¹⁵

다음으로 히르시 알리는 내세를 강조하며 그에 근거하여 순교를 강요하는 가르침도 개혁의 대상임을 주장한다. 꾸란은 이슬람을 위한 순교에 대해 내세의 보상이 주어짐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슬람 신앙의 내세지향성과 순교에 대한 가르침은 급진주의 무슬림들에 의해 자신들의 폭력성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이 문제다. 히르시 알리는, 자살 테러 공격을 합리화하는데 사용되는 가르침들을 거부하고 꾸란을 이 세상 삶의 길잡이로서 가르칠 것을 이슬람 지도자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할 때 이슬람 사회의 후진성이 극복되고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이슬람 개혁의 세번째 영역은 샤리아이다. 샤리아는 이슬람의 율법을 공식적으로 법제화한 것이다. 종교적 규례들 뿐 아니라 일상생활, 개인의 행동, 경제교류와 법적 거래, 가정생활, 심지어 국가의 통치까지도 규제하고 지배한다.¹⁶ 샤리아는 아내에 대한 구타, 여성의 사회활동 규제 등 여성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비인도적인 형벌을 적용하며, 배교나 신성모독을 사형에 처하도록 해 이슬람의 폭력성을 자극한다. 히르시 알리는 합리적 비판과 인권 보장을 거부하는 샤리아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 Ibid., 138.

16 Ibid., 188.

마지막으로 이슬람 신앙에서 지하드(성전)의 재해석이 시급하다. 지하드를 내면의 영적 투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정치투쟁 또는 무력투쟁으로 왜곡하는 과격 이슬람주의자들의 주장은 무력화되어야 한다. 히르시 알리는 이슬람 개혁의 핵심은 테러리즘의 뿌리가 되고 있는 지하드에 대한 개혁이라고 주장한다.

히르시 알리는 이슬람 세계 내부에서는, 타종교와의 평화적 공전을 지향하는 다수 무슬림(메카 무슬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말한다. 이슬람의 개혁을 원하는 온건한 혹은 반체제 무슬림들과 폭력적인 투쟁을 통해 예언자의 시대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메디나 무슬림들 사이의 전쟁이다. 히르시 알리는, 아직까지는 메디나 무슬림의 급진주의적 주장이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한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테러를 통한 메디나 무슬림들의 주장이 사람들의 주목을 더 받고 있고 아직은 더 많은 자원이 메디나 무슬림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¹⁷

그러나 히르시 알리는 메카 무슬림들을 평화적 공존으로 이끄는 이슬람 개혁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세계화의 변화 속에서 이슬람 세계가 이슬람 종교개혁에 유리한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슬람 사회의 교육확대와 매스미디어 통한 정보의 공유,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이슬람의 견고한 벽이 낮아지고 있다. 이슬람 개혁의 필요성에 동조하는 건전한 지식인 계층, 정치 집단이 형성되고 있다. 16세기 기독교 세계가 인쇄 등 기술 발전, 도시화, 그리고 개혁을 지지하는 계층의 형성 등을 통해 중세의 견고한 종교적 벽을 깨고 루터의 종교개혁을 가능케 했던 것처럼, 21세기 이슬람 사회 내에

17 히르시 알리, 『나는 왜 이슬람 개혁을 말하는가』, 298-299.

유사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슬람의 전통적 세계관이 개혁되지 않고서는, 세계화되고 기술 문명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고가 무슬림들의 의식 속에 확산되고 있다.¹⁸

이슬람 세계 내부의 급격한 변화들은 다수의 메카 무슬림들에 대한 이슬람 개혁자들의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히르시 알리는, 이슬람 개혁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배경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한다. 하나는 새로운 정보 기술, 확대되는 합리적 교육의 영향으로 이슬람 세계 내에서 이전에 없던 소통의 장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서구에서 성장한 이슬람 지식인들에 영향력이다. 이들은 무슬림 사회의 무능과 부패를 비판하고 서구의 합리적 세계관의 적용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중동의 대표적인 국가들 안에 이슬람 개혁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¹⁹

IV. 이슬람 개혁(ISLAMIC REFORMATION)에 대한 논의들

1. 이슬람 개혁에 대한 다양한 관점

종교개혁이 오늘날의 이슬람 사회를 둘러싼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9.11 사태 직후인 2002년, 이란 학자인 하셈 아가자리(Hashem Aghajari)는 15세기에 기독교 세계에서 일어났던 종교개

18 Ibid., 105-109.

19 Ibid., 301-302.

혁을 외쳤던 것처럼, 이슬람력으로²⁰ 15세기인 오늘날의 이슬람 세계도 종교개혁의 도전 앞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람 종교개혁 프로젝트”(Project of Islamic Protestantism)가 필요하다고 외쳤다.²¹ 아가자리가 주장하는 이슬람 프로테스탄티즘(Islamic Protestantism²²)는 합리적, 과학적, 인도주의적 이슬람을 의미하며, 합리적 비판에 대해 열려 있는 이슬람을 의미한다.”²³ 아가자리의 주장 이후 다수의 서구학자들과 이슬람 학자들에 의해 이슬람 종교개혁, 이슬람 프로테스탄티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슬람 종교개혁이란 용어는 역사적으로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찰스쿠자만(Charles Kurzman)과 마이클 브로워(Michaelle Browsers)는 그들이 편집한 책 *An Islamic Reformation?*(2004)의 서문에서 이슬람 개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정리하였다.²⁴

첫째, 오리엔탈리즘²⁵의 관점에 기초한 서구 학자들의 이슬람

20 무슬림력, 또는 히지라력(히즈라력) (*Hijri Calender*)이라고도 불리며 이슬람교 사회에서 사용되는 태음력이다. 약자 표기는 A.H.(라틴어로 *Anno Hijrae*)이다.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것을 히지라라 부르는데, 그 날짜인 AD 622년 7월 16일을 히지라 원년 1월 1일로 삼았다. <https://ko.wikipedia.org/wiki/이슬람력> (위키백과 내용 참조)

21 아가자리는 이 주장 직후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이란 법정에 의해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로 인해 그는 이슬람 종교개혁을 대변하는 인물이 되었다.

22 이슬람 저항주의로 번역될 수 있다.

23 Browsers & Kurzman “Introduction: Comparing Reformations,” 1.

24 Charles Kurzman & Michaelle Browsers, “Introduction: Comparing Reformations” in Michaelle Browsers & Charles Kurzman, eds, *An Islamic Reformation?* (Lanham: Lexington Books, 2004), 1-17.

25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은 원래 유럽의 문화와 예술에서 나타난 동방예술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동양과 서양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동양에 대한 서양의 우월성이나 동양에 대한 서양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서양의 동양에 대한 고정되고 왜곡된 인식과 태도 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라는 개념이 ‘서양의 동양에 대한 인식’이라는 폭넓은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은 1978년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 1935-2003)가 발간한 <오리엔탈

종교개혁에 대한 이해이다. 낙후된 이슬람 지역은 결국 서구의 모델을 따라 발전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기독교가 근대화 과정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종교개혁이 이슬람 안에 나타날 것이다. 이들은 이슬람 종교개혁을 종교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근대화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일부 무슬림 근대주의자들(Islamic Modernists)도 유사한 관점으로 이슬람 종교개혁을 이해했다. 즉 개혁된 이슬람의 기초 위에서 서구의 합리적 사상과 서구 문명을 수용하는 운동을 이슬람 종교개혁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이들은 서구학자와는 약간 다른 입장에서 있었다. 종교적으로는 전통적인 이슬람 신앙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슬람과 서구적 가치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을 이슬람 종교개혁으로 이해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활동한 이집트의 마흐무드 압둘라(Muhammad Abduh), 인도의 이끄발(Muhammad Iqbal), 터키의 괴칼프(Ziya Gokalp) 등이 대표적인 이슬람 학자들이다. 이란 출신 사이드 자말 알 딘 알아프가니(Sayyid Jamal al-Din al-Afghani)는 같은 맥락에서 “이슬람은 무슬림 루터를 필요로 한다.”(Islam needed a Muslim ‘Luther’)고 주장하였다.²⁶ 두 번째, 이슬람 문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초기 이슬람의 본질로의 복귀를 이슬람 개혁주의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이들은 부패한 가톨릭을 거부하고 초기 기독교 본질로의 복귀를 주장한 개신교의 종교개혁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본질로의 복귀를 이슬람 종교개혁의

리즘)이라는 책이 계기가 되었다. 이 책에서 사이드는 서구 국가들이 비(非)서구 사회를 지배하고 식민화하는 과정에서 동양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태도가 어떻게 만들어져 확산되었는지를 분석했다. (두산 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28091&cid=40942&categoryId=31500> 에서 인용 (2018년 4월 25일에 접속).

26 Browsers & Kurzman “Introduction: Comparing Reformations,” 4.

의미로 이해한다. 18세기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시작된 이슬람 개혁 운동인 와하비즘(Wahhabism)²⁷을 그 전형적인 예로 본다.²⁸ 이들의 주장은 근본주의적 신앙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비판적 사유를 추구하는 현대적 개혁주의와는 구별된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사용되는 이슬람 개혁주의의 의미이다. 아가자리에게 영향을 미쳤던 이란의 개혁운동가 알리 샤리아티 (Ali Shari' ati)는 20세기 후반기 이슬람 상황을 서구의 중세 말기와 비견하였다. 중세 기독교처럼 오늘날의 이슬람 세계는 근본주의적 이슬람 신학에 의해 합리적이고 비판적 사고가 억압되고 있으며 종교적 권위주의 아래 정치, 종교, 사회적으로 이슬람 체제가 부패해 있다고 평가한다. 종교와 사회가 깊이 통합된 이슬람 세계의 속성을 고려할 때, 이슬람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종교로서의 이슬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의 이슬람 종교개혁의 의미는, 이슬람의 타종교와의 (다원주의적) 공존, 이슬람 신앙과 실천에 관한 합리적이고 비판적 토론 허용, 전통적 법학파들의 구속을 받지 않는 꾸란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과 적용, 이슬람 사회의 민주화 등을 포함한다. 히르시 알리가 주장하는 이슬람 (종교) 개혁은 이 범주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27 18세기 중엽 아라비아반도에서 출현한 이슬람 복고주의 운동이자 사회정치 운동으로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의 건국이념의 기초이자, 근대 이슬람 부흥운동의 효시이다. 이슬람 전통주의(원리주의)인 살라피야(al-Salafiyya) 사상을 이어받은 보수주의 운동으로, 와하비야(al-Wahabiyyah) 운동이라고도 한다. 이슬람문명의 주요 성지를 돌아다니면서 18세기 이슬람 사회의 병폐를 직접 경험한 압둘 와하브 Muhammad ibn Abdul Wahab, 1703-1792)가 1745년 창시하였다. 와하비즘은 창시자 와하브에서 유래한 것이다.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2291&cid=40942&categoryId=31600> 에서 인용함. 이슬람의 본래의 정신을 회복하자는 운동이란 면에서 개신교를 탄생시킨 기독교 종교개혁과 비교되기도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가톨릭의 복고 운동에 더 가깝다는 의견도 있다. 이슬람의 근본교리와 정전인 꾸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과, 꾸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와하비즘은 이슬람 개혁주의와 대립되는 이슬람 근본주의의 뿌리로 평가를 받기도 한다.

28 Browsers & Kurzman "Introduction: Comparing Reformations," 7.

영국의 경제주간지인 *The Economist*는 1980년대 이래 “임박한 이슬람 종교개혁”(An Impending Islamic Reformation)을 주장하는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들은 15세기 종교개혁과 오늘날의 이슬람 상황의 유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²⁹ (1) 전통적인 이슬람의 종교적 정치적 기구들의 문제에 대한 각성, (2) 널리 퍼져 있는 좌절감, (3) 초기 이슬람의 이상의 회복에 대한 열망, (4) 개혁을 촉구하는 외부적 자극 등이다.³⁰

(1) 이슬람의 문제인가? 이슬람 신학의 문제인가?

로버트 레일리(Robert R. Reilly)는 이슬람의 극단적 테러리즘의 뿌리를, 이슬람 신앙 자체보다는 이슬람에서 합리적, 비판적 토론을 질식 시켜버린 이슬람 신학에서 찾는다. 이성에 기초한 합리적 토론이 배제되면서 한때 융성하던 이슬람 문명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고 억압적인 독단주의가 이슬람 내의 비판적 토론을 마비시켰다고 분석한다. 레일리는 그의 책 *The Closing of the Muslim Mind*(2010)에서 이슬람 문명이 이성에 근거한 합리적 토론을 잃게 되는 과정을 이슬람 역사를 통해 설명한다.

레일리는 순니파 이슬람 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아샤리 파의 (합리적 토의를 중시한 무타질라 하에 대한) 승리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특히 이슬람 신학의 집대성자로 인정되는 알 가잘리의

29 Browsers & Kurzman “Introduction: Comparing Reformations,” 7.

30 그러나 이슬람의 상황을 기독교 종교개혁과 연결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 이슬람 형제단의 지도자인 Tareq al-Suwaidan은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이슬람은 중세의 카톨릭과 다름을 지적하며 이슬람 개혁을 기독교 종교개혁과 비교하는 것을 거부한다. (1) 이슬람에는 기독교 부패의 원인이었던 성직자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2) 부패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교황청 같은 정치조직이 없다. (3) 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수 없다. (4) 양자 연결은 서구 중심적 관점인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의 행태일 뿐이며 이슬람 상황에 맞지 않다. Robert R. Reilly, *The Closing of the Muslim Mind: How Intellectual Suicide Created the Modern Islamist Crisis*. (Wilmington: ISI Books, 2010), 30.

신학적 승리로 인해 이슬람의 사고 속에서 합리적 토론의 여지가 사라지게 되었다.³¹

사유를 질식시키는 두 가지 근본적인 길이 있다. 하나는 지식의 근거가 되는 이성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실재를 알 수 없는 대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이성으로는 아무 것도 알 수 없으며 실재에 대한 지식도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는 지적인 접근을 본질적으로 부정한다. 후에 위 두 가지 아샤리 파의 주장이 수니파 이슬람의 공식적인 신학적 입장으로 수용된다. 그 결과 인간 이성은 실재로부터 격리된다. 더 중요하게는 인간 이성과 신이 분리된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마음의 치명적 분리는 수니파 이슬람의 치명적 불행의 근원이 되었다.³²

그는 현대의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리즘은 이슬람 자체보다는 이슬람의 신학적 발전 과정에 나타난 역사적 부산물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8-10세기 수니파 이슬람 신학의 근간이 되는 아샤리파 신학 형성 과정의 결과라고 주장한다.³³ 때문에 레일리에게 있어서 이슬람의 개혁은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이슬람의 성격을 규정하는) 신학적 영역의 개혁을 의미한다. 오늘날 이슬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악한 결과들은 역사적이며 신학적인 발

31 Robert R. Reilly, *The Closing of the Muslim Mind*, 125-126.

32 Ibid., 4.

33 Roger Scruton은 Reilly 책 서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실패는 이슬람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800여년 전 진행된 이슬람의 문화적, 지적 자살의 결과이다. Reilly는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아니라 왜 잘못되었는가?에 대해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그 시작을 9-10세기에 배태된 기형적 신학과 거기서 비롯된 역기능적인 문화에서 찾는다.” Roger Scruton, 2010 “Foreword,” in Browsers & Kurzman “Introduction: Comparing Reformations,” 1, 2010, *The Closing of the Muslim Mind: How Intellectual Suicide Created the Modern Islamist Crisis* (Wilmington: ISI Books), xii.

전 과정의 산물임을 인정하고, 꾸란의 재해석을 통해 현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이슬람 신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이 잘 진행된다면 현대 급진주의 이슬람의 테러리즘의 뿌리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현 이슬람 세계의 문제점을 이슬람 신학에서 찾고 이슬람 신학의 경직성 해결을 통한 이슬람의 개혁을 지향하고 있다는 면에서 레일리의 이슬람 개혁론은 위에서 살펴본 히르시 알리의 이슬람 개혁론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슬람 신학의 경직성을 넘어 꾸란 내의 메디나 시대의 계시에 대한 재해석까지 요구하고 하디스의 신적 권위 부여를 거절하는 히르시 알리의 개혁론은 레일리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적극적인 이슬람 개혁을 주장한다고 봐야 될 것 같다.

(2) 히르시 알리의 이슬람 개혁론에 대한 평가

히르시 알리의 이슬람 개혁론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히르시 알리 책에 실린 평가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³⁴

이 책은 이슬람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 길은 무슬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서구는 꾸란에 대한 광신을 없애려는 히르시 알리의 계획에 주목하고 광범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슬람 개혁의 날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머지않은 그 날이 온다면 역사가들은 히르시 알리가 이슬람 개혁을 위해 저변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³⁵

이 책은 아랍의 봄에서 겪은 여러 경험들을 건설적으로 탐구하

34 5-6

35 *National Review*

고 있으며 이슬람이 내부로부터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과 이미 세속화의 길에 접어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슈피겔 Der Spiegel)

히르시 알리는, 이슬람 사회의 억압적 특성 때문에 자유롭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개혁론에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의 다른 책 『유목민 Nomad』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아프간 여성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소개한다.

당신과 당신이 하는 일을 지지합니다. 당신과 나의 차이는, 당신은 공개적으로 이슬람과 싸우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신을 동의하고 이슬람과 싸우는 수 많은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³⁶

그러나 히르시 알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하는 이슬람 학자와 서구의 진보적 학자들도 적지 않다. 메르진 오덴핀(Merjin Oudenampsen)은 내부 정보제공자(native informant)의 관점으로 인정하면서도, 히르시 알리의 이슬람 종교개혁에 대한 주장을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편향된 관점이라고 평가한다.³⁷ 히르시 알리

36 Ayaan Hirsi Ali, 2010. *Nomad From Islam to America: A Personal Journey Through the Clash of Civilization* (London: Simon & Schuster), 216.

37 Oudenampsen은 히르시 알리의 이슬람 종교개혁에 대한 주장을, 내부 정보제공자(native informant)의 관점으로 본다. 내부자로서 히르시 알리의 이슬람에 대한 견해는 크게 다음 두 가지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분석한다. 하나는, 청년기에 경험한 이슬람 근본주의적 가르침과 활동들이고, 다른 하나는 네덜란드로 이주한 이후 경험한 서구의 관점이다. 동양을 보는 서구적 관점인 오리엔탈리즘과 미국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인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의 영향이다. Merjin Oudenampsen, "Deconstructing Ayaan Hirsi Ali: On Islamism, Neoconservatism, and the Clash of Civilizations," *Politics, Religion & Ideology*, 17(2-3), (2016): 227-248.

의 개인적 경험들이 그녀의 이슬람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첫째, 히르시 알리의 이슬람 이해의 편파성이다. 그녀의 이슬람 이해는 보편적인 무슬림들의 경험과 거리가 있다. 청년기에 배운 이슬람 근본주의적 신앙과 활동을 통한 히르시 알리의 이슬람 이해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제한적인 이슬람 이해에 기초한 그녀의 이슬람 비판은 이슬람 전체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히르시 알리의 이슬람을 이해하는 또 다른 관점은, 오리엔탈리즘과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의 패러다임에 기초해 있다. 이슬람을 서구에 비해 문화적으로 열등하며 합리적, 비판적 사유가 결여되어 있다고 이해한다. 이슬람의 개혁에 대한 관점도 큰 틀에서 이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한 히르시 알리의 이슬람 개혁에 대한 대안은 실제적이지 못하고 무슬림 사회를 향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한다.

『나는 왜 이슬람 개혁을 말하는가』를 한국어로 번역한 정상률 명지대 교수도 히르시 알리의 개혁론에 대한 조심스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슬람 내부자로서 무슬림의 폭력성을 이슬람의 개혁 필요성과 연결해 분석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이슬람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꾸란을 부정하고 근본 교리의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이슬람 자체를 부정하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평가한다. 이슬람 근본주의를 지향하는 메디나 무슬림 중심으로 한 개혁론은 이슬람 세계 내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이슬람 급진주의의 폭력성의 원인에 대해서도 이슬람의 교리 이외의 보다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한다.³⁸

38 정상률, “한국어판 해제” 아얀 히르시 알리, 『나는 왜 이슬람 개혁을 말하는가』(서울: 책담, 2016), 7-15.

히르시 알리가 구체적 개혁 대상으로 제시한 5가지 항목의 개혁이 이슬람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정상률 교수의 평가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필자는 이슬람 개혁의 핵심으로 히르시 알리가 제시한 5가지 항목들은, 다수의 개혁주의적 무슬림 학자들의 최근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하디스의 (신적) 계시의 권위를 거부하고, 기존의 4대 법학파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운 꾸란 해석학을 주장하는 여타 개혁주의 이슬람 학자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³⁹ 2008년 옥스포드에서 모인 이슬람 개혁주의 학자들이 발표한 “Manifesto For Islamic Reform”도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이들은 하디스나 이슬람 법학자들의 해석 등 보조 자료들을 통해서만 꾸란을 해석해야 한다는 과거 이슬람 학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꾸란은 꾸란 자체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직된 이슬람 신학에 근거한 과거의 관점은 성직자의 권위주의를 조장하고 신학이나 법체계가 꾸란의 계시 자체를 대체하는 폐해를 낳았다고 주장한다.⁴⁰

39 개혁주의적 번역 꾸란이 한 예이다. *Quran A Reformist Translation*(2007)이 꾸란은 개혁주의적인 무슬림 학자들의 번역으로 법학자들의 주석을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다. 오직 꾸란 자체로 신의 계시를 지향한다. “맹목적 믿음보다는 이성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오직 진리에만 자신을 복종함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메시지”(A message for those who prefer reason over blind faith, for those who seek ultimate peace and freedom by submitting themselves to the Truth alone.)라는 부제를 달았다. 개혁주의적 관점으로 다음의 내용을 덧붙였다. “본 꾸란의 개혁주의적 번역은 신적 계시에 대한 성차별 없는 이해를 제공한다. 남성 2명, 여성 1명으로 구성된 세 번역자의 협업의 결과이다. 쟁점이 되는 구절들의 의미에 대한 종교지도자들의 간섭을 완전히 거부한다. 꾸란의 의미는, 가부장적 권위구조에 기초한 오래 전 학자들의 해석에 의존하기 보다는, 꾸란 자체의 논리와 언어에만 의존하여 해석한다. 광범위하게 성경 내용을 교차 참조했으며 철학적, 과학적 쟁점에 관한 토론들을 추가하였다.” Edip Yuksel Layth, Saleh al-Shaiban and Martha Schulte-Nafeh, 2007. *Quran A Reformist Translation*, (United States of America: Brainbow Press) http://www.study-quran.org/resources/Quran_Reformist_Translation.pdf (2018년 4월 15일 접속)

40 Edip Yuksel, “Manifesto For Islamic Reform” Edip Yuksel ed, *Critical Thinkers for Islamic Reform: A Collection of Articles from Contemporary Thinkers on Islam*, (United States of America: Brainbow Press, 2009), 39-46.

파키스탄 출생 이슬람 학자인 라흐만(Fazlur Rahman)의 주장도 히르시 알리의 이슬람 개혁론을 지지한다. 파즐로 라흐만은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법학파에 따른 꾸란 해석을 거부하고, 계시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현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계시를 해석하는 열린 꾸란 해석학을 주장한다. 그는 꾸란의 계시를 영원불변의 신의 계시와 그 계시가 선포된 당시의 역사적 정황이 섞여있는 것으로 이해하며, 역사적 문화적 정황을 배제하고, 신의 순수한 계시를 중심으로 이슬람이 가르쳐져야 한다고 주장한다.⁴¹

히르시 알리의 이슬람 개혁을 위한 5개 항목은 이슬람의 정체성을 소멸시킨 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슬람 신학과 전통에 의해 훼손된 이슬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합리적, 비판적 꾸란 해석과 그에 따른 이슬람 신학 전반에 대한 재해석은 대다수 무슬림을 구성하는 메카 무슬림들에게 현대세계와 공존 가능한 새로운 이슬람의 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V. 결론: 아얀 히르시 알리의 이슬람 개혁론과 한국교회

목숨을 걸고 이슬람의 개혁을 외쳤던 히르시 알리의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가 아니다”라는 선언은 이슬람의 개혁을 통해 이슬

41 꾸란은 신적 계시와 역사적 정황, 둘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꾸란을 통해 참된 이슬람 법과 원칙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방향의 운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로, 꾸란 계시가 주어진 구체적 역사적 정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 가운데 선포된 영원불변한 계시의 보편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구분해 낸다. 두 번째로, 이렇게 추출된 계시의 보편적 가르침을 현재의 상황에 맞춰 특정한 법과 제도로 적용시킨다.” Fazlur Rahman, 1982, *Islam and Modernity: Transformation of an Intellectual Tra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 (임스데반, “변화하는 이슬람 세계와 이에 대한 기독교 선교적 조망,”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 4, no. 1, (2011), 139.에서 재인용)

람 세계가 지구촌 사회의 건전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던 필자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이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과연 히르시 알리의 이슬람 개혁은 이슬람 자체를 부정하는 시도인가?

히르시 알리의 이슬람 개혁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녀의 주장은 이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슬람 세계의 다수를 구성한 메카 무슬림의 건전성을 인정했고 개혁의 대상은 무슬림 인구의 소수에 불과한 메디나 무슬림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히르시 알리는 여러 차례 이슬람 종교개혁의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평가를 내렸고, 이슬람의 본질적 변화를 통해 세계의 여타 문명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슬람 사회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였다. 이슬람의 소멸보다는 세계화된 현대사회에서 타 문명(종교)과 공존 가능한 이슬람을 지향한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또 개혁주의적(반체제) 무슬림들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여 이슬람의 개혁이 성공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이슬람의 소멸을 지향했다고 보기 어렵다.

히르시 알리의 이슬람 개혁론은 두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도전을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 하나는, 메디나 무슬림들의 폭력성과 반인륜성의 뿌리로 이슬람을 거론하고 이슬람의 개혁을 역설한 점이다. 이슬람 급진주의의 폭력성의 본질적 해결을 위한 쉽지 않은 도전을 제시한 것이다. 이슬람의 (종교)개혁이 이슬람 급진주의 운동의 해결을 위해 반드시 직면해야 할 도전임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임에도 과감하게 이슬람 개혁을 주장한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다른 하나는 이슬람 개혁을 위한 (반체제) 개혁적 무슬림들의 존재를 일깨우고 이들을 통해 이슬람 세계

내부로부터 이슬람 개혁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실제적 대안 제시이다. 이슬람 비판을 배제한채 이슬람을 막연히 이상화하거나, 반대로 이슬람을 악마화하여 무조건적인 배척과 증오를 조장하는 양극단을 극복하고 현실적인 이슬람 문제 해결의 방안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히르시 알리의 이슬람 종교개혁 논의는 이슬람을 어떻게 바라 봐야 하는가?를 놓고 고민하고있는 한국교회를 향해 의미 있는 조언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불교나 여타 종교와는 달리, 이슬람을 한국사회에 공존할 수 없는 종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 인구의 1/4을 차지하는 구체적인 실체이며 세계화된 오늘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애써 외면하고 이슬람이 한국사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천명해 왔다. 이에 반해, 히르시 알리의 개혁론은 이슬람의 어두운 면을 주목하되 그것이 개혁되어 함께 공존하는 미래를 지향한다.

이슬람이 우리의 또 다른 이웃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쩌면 세계화된 오늘날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일지 모른다. 이슬람을 직면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할랄 산업은 한국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우리 사회 내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⁴²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무슬림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으로 존재하고 있다.⁴³ 그 수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슬람에 대한 적대감을 자극해 이슬람 자체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이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슬람

42 “할랄푸드 칸칸한 인증 넘고 넘어...무슬림 밥상 한식 바람 분다”(경향일보, 2018. 05. 13)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5132118005&code=920501

43 국내 무슬림 인구는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 무슬림 인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한국인 무슬림 3만 5천명, 불법체류자 무슬림 21,000명, 장단기 체류 무슬림 14만 3,500명 총 20만명 (자료: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11월 기준) <http://www.hankookilbo.com/v/bf454401a3574bfdbb59e4602cb6aef8> (2018년 4월 30일 접속).

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동시에 개혁주의적인 무슬림들과의 연계를 통해 다수 메카 무슬림들을 우리의 건전한 이웃으로 정착시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⁴⁴ 히르시 알리의 이슬람 개혁론은 이 면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히르시 알리의 이슬람 개혁론은 이슬람의 미래에 대한 그녀의 긍정적 기대를 담고 있다. 기독교도 종교재판, 마녀사냥,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나 식민주의 등으로 인해 어둡던 시절이 있었지만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열린 종교가 되었다. 히르시 알리의 이슬람 개혁론은, 이슬람도 유사한 종교개혁 과정을 통해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무슬림들이 이슬람과 샤리아의 이름으로 저지른 비양심적이고 반이성적인 범죄는 이미 이슬람 경전과 교리, 율법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지고 있다. 잔혹한 폭력이 미래의 개혁가들을 수없이 위협하더라도 그 과정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마침내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44 현대선교는 자국 내 이주한 열방을 새로운 선교 기회로 이해한다. 한국으로 이주하는 무슬림들을 한국교회를 향한 위협요인으로 보기보다는 한국교회가 더 선교적인 교회로 성장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슬람 개혁주의적 관점을 나누고 이를 통해 이웃으로 다가온 무슬림들에 대한 선교의 기회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아얀 히르시 알리, 『이단자 아얀 히르시 알리』(*Infidel Ayaan Hirsi Ali*) 추선영 역. 서울: 알마. 2010.
- _____. 『나는 왜 이슬람 개혁을 말하는가』(*Why Islam Needs A Reformation Now*) 서울: 책담. 2016.
- 임스테반, “변화하는 이슬람 세계와 이에 대한 기독교 선교적 조망.”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 4 no. 1, (2011):123-159.
- Browsers, Michaelle & Charles Kurzman, eds. *An Islamic Reformation?* Lanham: Lexington Books. 2004.
- Eickelman, Dale F. “Who Speaks for Islam? Inside the Islamic Reformation.” Michaelle Browsers and Charles Kurzman, eds. *An Islamic Reformation?* Oxford: Lexington Books. 18-27. 2004.
- Esposito, John L. *The Future of Isla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Esposito, John L. & Dalia Mogahed, *Who Speaks for Islam: What A Billion Muslims Really Think*. New York: Gallop Press.
- Hirsi Ali, Ayaan. *Namad: A Personal Journey Through the Clash of Civilization*. London: Simon & Schuster. 2010.
- Oudenampsen, Merjin. “Deconstructing Ayaan Hirsi Ali: On Islamism, Neoconservatism, and the Clash of Civilizations.” *Politics, Religion & Ideology*. 17(2-3), (2016): 227-248.
- Rahman, Fazlur. *Islam and Modernity: Transformation of an Intellectual Tra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 Reilly, Robert R. *The Closing of the Muslim Mind: How Intellectual Suicide Created the Modern Islamist Crisis*. Wilmington: ISI Books, 2010.
- Roberson, B.A. ed. *Shaping the Current Islamic Reformation*, London: Frank Cass, 2003.
- Scruton, Roger. “Foreword.” Robert R. Reilly, *The Closing of the Muslim Mind: How Intellectual Suicide Created the Modern Islamist Crisis*. Wilmington: ISI Books, ix–xii, 2010.
- Yuksel, Edip, Saleh al-Shaiban and Martha Schulte-Nafeh, *Quran A Reformist Translation*, United States of America: Brainbow Press http://www.studyquran.org/resources/Quran_Reformist_Translation.pdf2007.
- Yuksel, Edip. “Manifesto For Islamic Reform.” Edip Yuksel ed. *Critical Thinkers for Islamic Reform: A Collection of Articles from Contemporary Thinkers on Islam*. United States of America: Brainbow Press, 2009.

■ ABSTRACT

Understanding Ayaan Hirsi Ali's Reformation

Steve Yim

For the Korean Church in the 21st century, Islam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topics to understand. “What is Islam to us?” It is not easy to answer rightly, since Korean churches have little experience with the Muslim world. One of the ways to get a balanced picture of Islamic world is to listen to the voices of those who were insiders of Islamic societies with reformist perspectives.

Ayaan Hirsi Ali was an active insider of Islamic Fundamentalism, but later became critical activist against Islam and the Islamic terrorism. Recently she suggested an Islamic reformation as a way of solving Islamic terrorism. In her book titled “*Why Islam Needs a Reformation Now* (2015),”

Hirsi Ali insists Islam is responsible for the Islamic terrorism and therefore, Islam needs a reformation to remove grounds for committing terrorism from the Islamic teachings. If the reformation can be achieved, the Islamic civilization can coexist with other civilizations. In support of this view, there are many Muslim schol-

www.kci.go.kr

ars and activists who insist on the Islamic reformation.

Furthermore, for change to happen, non-Islamic civilizations need to cooperate with Muslim reformists to reform Islam and the Islamic society. Hirsi Ali's view on Islam and the future of Islam will be helpful for the Korean church to build a balanced understanding on Islam and Islamic world.